

# “이곳을 조심하라” 탈선지대 32곳

## 남부경찰, ‘학폭 특별관리구역’ 공개

### 오후 8시~12시 청소년 일탈 빈번

학교 폭력 등 청소년 일탈 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일까. 광주남부경찰이 청소년 일탈 행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학교폭력 특별관리구역’을 만들어 공개했다. 지난 한 해 청소년 일탈 행위로 112 신고된 330건을 분석해 청소년 비행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우범 지역 32곳을 추려낸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남부서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4개 경찰서도 각각 ‘학교폭

력 특별관리구역’을 설정, 집중 관리해 비행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남부경찰이 분석한 지역별, 시간대별, 장소별 우범 지역을 들여다보면 주민들은 자기가 사는 어느 지역에 청소년 일탈 행위가 잦은지, 어느 시간에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다.

남부경찰은 우선, 지난해 가장 많이 신고됐던 장소로 방림 1 어린이공원을 꼽았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거나 교복을

입은 채로 흡연한다는 내용 등 모두 1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또 봉선 2 어린이공원(9건)으로 뒤를 이었고 사직도서관주변(8건), 봉선 3 어린이공원(7), 방림 2 어린이공원, 유안그린공원(6) 등도 경찰 관리구역에 포함됐다.

장소별로는 공원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4.54%에 달해 경찰은 지역 공원에 대한 집중 관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놀이터(67건·20%), 주택가 골목(37건·11%) 등도 신고 건수가 적지 않아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간대별로는 학원이 끝나는 시간과 고등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신고 건수가 123건(37.2%)으로 가장 많았다. 또 초·중학생의 하교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들어온 신고 건수도 85건(25.7%)에 달했다.

서부경찰도 비슷한 방법으로 치령중, 쌍촌시영아파트, 풍암동 우미광장 일대 등 관내 7곳을 ‘학·폭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순찰 활동에 나서고 있다. 등부에서는 지산빌딩, 무등중 일대 등 관내 5곳이 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선효과”를 줄이기 위해 분기별 112 신고 건수를 점검, 구역을 재지정하거나 추가로 선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진드기 퇴치 합시다” 2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아생진드기 퇴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순천제일고, ‘패륜’ 동영상 2명 전학 징계

## 광산경찰, 노인 폭행 중학생 수사

순천의 한 고교생들이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광주일보 보도(5월28일자)와 관련, 학교 측이 해당 학생 2명에 대해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또 광주의 한 중학교 인근 공원 앞에서 60대 할머니가 ‘몸자마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5월 28일자 6면)와 관련, 경찰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두 위원회의를 열어 동영상 파문을 일으킨 학생 2명에 대해 전학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선도위원회는 이날부터 31일까지 3일간 해당 학생 2명에 대해 등교 정지와 함께 전학 조치를 취했다. 선도위원회 측은 해당 학생이 전학을 거부할 경우 퇴학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다.

모(여·67)씨와 광주 모 중학교 등을 상대로 폭행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학교 측으로부터 여학생 1명이 할머니와 부딪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 여학생은 “등교 중 신발끈이 풀려 앉은 자세로 끈을 묶고 일어나려 할 때 지나던 할머니와 부딪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것처럼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박씨를 밀치고 때린 뒤 떠난 것이 사실인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기 위해선 박씨의 진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박씨가 진술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진상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당 중학교 측은 이날 “한 여학생이 실수로 할머니와 부딪힌 사고일 뿐”이라며 “당시 여학생이 박씨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고 박씨를 찾아가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탈주범 이대우 땀에 못 살겠네”

“날씨도 더운데 탈주범 이대우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탈주범 이대우가 광주로 잡힌 뒤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이 걸리면서 이대우를 목격했다는 제보전화도 잇따르고 있지만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연일 광주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전화를 받고 이 일대를 수색했지만 오인신고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하루에만 북구 운암동·서구 광천동과 풍암동, 남구 월산동, 광산구 월계동 등에서 5건의 탈주범 목격 제보 전화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00만원인 신고 포상금이 1000

## 광주경찰, 열흘째 단서 못찾아

### 1000만원 포상금 올린 뒤 신고 폭주

전역을 ‘이 잡든’ 뒤지고 있지만 열흘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탈주범 이대우가 지난 20일 광주에 잡힌 이후 목격했다는 신고전화는 모두 20건으로, 15건은 오인 신고로 판명됐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북부경찰의 경우 이날 새벽 3시께 운암동에서 이대우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택시비를

결찰은 29일 1000여명을 동원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일제 검문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행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초동 수사 미흡이 빚어낸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대우가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해 택시를 타고 이동, 광주 남구 월산동에서 빈 마트를 털었지만 경찰은 4일 뒤 피해자가 신고하고 나서야 이대우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니원침 (8827) 김종두



# 신불자 50억 불법대출 수험 前지점장 중형

신용불량상태인 건설업자에게 제3자 명의를 통해 수신회원을 불법대출해 준 수험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29일 특경법상 배임과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도소안수협 전 지점장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7년 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 대출에 가담한 안도소안수협 직원 한모(36)씨와 신모(38)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누가 대문 더럽혔나”

○아파트 문에 누군가 대변을 덧칠해 놓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여·47)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께 광주서 서구 금호동 자신의 아파트 문에 누군가 동그란 원 모양으로 대변을 칠해놓고 도망갔다고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A씨에 앙심을 품은 누군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파트 내 CCTV가 없어 범인 검거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당원행사 경품 도의원 직위상실형

## 광주지법, 벌금 300만원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신현범)는 29일 당원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4) 전남도의회 의원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박모(4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해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4일 장성군 삼계면 모식당에서 열린 민주당원 단합대회에서 370여만원 상당의 경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노인 3명이 음주 운전을 한 당원의 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져 유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육사서 대낮 男생도가 후배 여생도 성폭행

육군사관학교 축제 기간에 남자 상급생도가 여자 하급생도를 대낮에 교내에서 성폭행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9일 “육사 생도의 축제 기간인 지난 22일 지도교수가 주관한 전공학과 점심 식사에서의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돌리는 음주로 취기 상태였던 남자 상급생도와 여자 하급생도 간에 성관계 위반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시 술을 마신 후 토

하고 있는 2학년 여자 생도를 4학년 남자 생도가 돌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여자 생도를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행사 중 남자 생도가 사라진 것을 안 동료 생도들이 남자 생도의 방을 찾아가는 바람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해 남자 생도를 구속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인정 2013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 2013년 6월 17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사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4만원
  -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 수강료를 환불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율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010-6603-040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